

광양시, 관광객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밑그림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 기본 실시설계 등 용역보고회 열어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개선 관광자원 연결로 시너지 창출

‘관광’을 민선 8기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삼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양시의 관광지도 밑그림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총 3건의 용역보고회를 연속 개최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구봉산권 관광연계시설 기본계

획 및 타당성에 관한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시는 고유한 권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 개발로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기존의 관광자원을 창의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7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이 완성되면 주변 사업과 연계해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고 관광객이 찾는 힐링로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영호남 화합을 상징하는 ‘소통의 다리’를 비전으로 모두가 함께 즐기는 ‘평화로운 섬진강길’, 섬진강의 특별한 경관을 주제로 하는 ‘아름다운 섬진강길’, 기존 관광자원에 체험형 액티비티를 도입한 ‘재미있는 섬진강길’ 등이 제시됐다.

최적의 다리 형식으로는 인문, 자연경관, 경제, 관광 등의 요소에 섬진강이 가

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영호남 화합의 상징 등을 두루 구현할 수 있는 강관거 다교와 사장교가 제안됐다.

인도교의 위치는 섬진포구(365m), 수월정(402m), 광양매화축제장(551m) 등 3가지 안이 제시됐으며 접근성, 조망권, 교량 연장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한 결과 섬진포구(안)가 가장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도교 건립 시 지역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합여가공간 확대, 콘텐츠 개발, 관광객 증가 등 383억원의 파급효과와 34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양매화축제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 사업은 섬진강 사이에 둔 광양 매화마을과 하동 이화마을을 연결해 영·호남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간 활발한 문화교류와 관광 루트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밖에 ‘광양 힐링 수변길’은 금호동

무지개다리-금호대교 구간 1.94km 해변에 힐링 수변길, 쉼터, 경관조명 등을 갖춘 힐링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4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중마동-금호동-대인동-배알도 섬 정원을 잇는 큰 그림을 장기적인 청사진에 반영해,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 시장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광양관광의 밑그림이 점차 실현되면 백운산권, 구봉산권, 섬진강권 등 3개 권역의 고유성과 특색을 살린 권역별 종합관광 개발사업이 연결돼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각종 연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광양만이 가진 자원들을 잘 꿰고 엮어서 자연과 인문, 스테이, 먹거리가 융합된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함께 실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시, 어르신 케어안심주택 운영 14일 개소...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수시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케어안심주택 ‘포근휴’가 지난 14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포근휴’는 의료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퇴원·퇴소자 및 섬 주민 등을 대상으로 통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단기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시 방문 진료, 가사 및 이동지원, 식사, 목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15일 전국 최초로 케어안심주택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으며, 문수동 도시재생지구 내 주택 2개소를 리모델링한 뒤 거주 공간을 마련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여수시니어클럽, 문수지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포근휴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섬 어르신들에게 내 집과 같은 거주 공간이 되어 주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여수형 사업이 전국적인 성공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뇌과학자! 장동선을 만나다’ 순천교육지원청, 공개특강 개최

순천교육지원청은 오는 25일 전남 동부지역본부 1층 이순신홀에서 전남교육 공동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뇌과학자! 장동선을 만나다’ 공개 특강을 개최한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강연은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를 초청해 ‘뇌과학자가 바라보는 AI(인공지능) 시대의 우리 미래와 교육’ 주제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장 박사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뇌과학적 시각에서 미래 교육과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 방향과 미래 교육의 역할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지혜를 함께 나누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허동균 순천교육장은 “AI 시대의 도래로 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향점을 찾아가고, 교사,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 신청 기간은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순천교육지원청 미래혁신교육팀(061-729-77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장흥군, 진로·직업 체험 장흥중 210명 대상 진행

한국기능장연합회가 지난 15일 장흥중학교에서 ‘2024년 농촌재능나눔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진로체험은 청소년들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중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진로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했다. 교육은 한국기능장연합회 소속 분야별 기능장들이 강사로 나섰다. 미용, 제과, 전기, 배관, 건축시공, 표면처리 기능장들은 오전 9개 반, 오후 9개 반을 맡아 진로 체험을 진행했으며, 학생 한명 당 오전과 오후 2종목의 진로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학생들은 기능장 직업의 직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분야별 실습을 통해 진로체험에 참여했다.

체험은 천연비누만들기, 금 도금하기, 케이크 만들기, 타일 디자인, 배관 스탠드 제작, 태양광 전기 자동차 만들기 등이 이뤄졌다.

장흥=김전환 기자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기존 18개 항목에 6개 항목 추가

여수시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18개 보장항목에 더해 △개물림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비탈사중 교통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성폭력범죄 피해 위로금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등 6개 항목을 추가해 총 24개 보장항목을 지원한다. 추가 보장항목에 대해서는 지난 6월10일 이후 발생한 사고 건부터 청구 가능하다.

보장 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2000만원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여수시 자전거 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와 중복으로 지급된다.

사고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은 지난 7일 제4회 고흥유자축제 메인무대에서 해양영어조합법인과 일본 리켄식품(주)과의 3자 간 1200만 달러 규모의 고흥 미역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고흥군, 해양영어조합법인·리켄식품 미역 수출 MOU

고흥군은 지난 7일 제4회 고흥유자축제 메인무대에서 해양영어조합법인과 일본 리켄식품(주)과의 3자 간 1200만 달러 규모의 고흥 미역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흥 미역의 일본 수출량을 늘리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협약과 동시에 13톤의 미역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상차 행사가 진행되어 첫 수출과 협약

이 같은 날 이뤄지는 성과를 올렸다.

해양영어조합법인은 고흥군 금산면에 위치한 미역 가공 전문 업체로, 연 매출 약 54억원을 기록하며 해외 시장에도 활발히 유통하고 있다.

리켄식품(주)은 일본 미야기현에 본사를 두고 해조류 연구 및 식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약 30종의 제품을 생산하며 연 매출 690억원을 달성하는 일본 최대의 해조류 가공업체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김철우 보성군수, 국가 예산 확보 총력

울포항 설계용역·하수도 정비 등

김철우 보성군수가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국가 예산 심의 단계의 핵심 창구인 박정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문금주 예결위원, 이연희 의원, 안규백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2025년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설

명하고 국비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울포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설계용역비 건의(5억원) △보성 우산·와장 처리 분구 관로 정비(47억원) △별교 호동·동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84억원) 사업 등이다.

특히, 울포항은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보성군 최초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됨에 따라 총 445억 원(국비 100%)을 투입해 항 내 기본 시설과 관광시설을 종합해 새롭게 조성할 예

정이다. 이에 김 군수는 남해안 해양관광의 신드롬을 이끌 울포항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자산을 될 수 있도록 울포항 설계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주 여건 개선 및 공공수역의 물 환경 보전을 위해 보성 우산·와장 처리 분구 관로 정비와 별교 호동·동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군수는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